사랑하는 IEA 회원님께

마소크르스의 신학과정 목회자들

미국은 겨울이라 많이 추겠지요? 페루는 여름인데 해마다 12월의 리마는 태양이 너무 뜨겁습니다. 일년에 12달부터 3월까지 약 4개월 동안은 뜨거운 태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항상 구름이 태양을 가려 태양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날씨가 많이 변했습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린 날이 더 많고 태양이 떠도 뜨겁지가 않습니다. 저녁에는 서늘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정글이나 산악지대의 기후는 여기 리마의 해안지방의 사막기후와는 많이 다릅니다.
저는 목회자 연장교육 강의를 위하여 페루의 정글, 산악 그리고 해안의 사막지역을 여행하다보니 같은 시기에 추위와 더위를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 글로벌 게이트웨이 대학의 신학과정을 4곳에 확장하였습니다. 작년에는 100명의 목회자가 공부하였으나 내년에는 150명이 공부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15명의 목사님들이 2년간의 공부를 끝내고 수료식을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올해 확장된 지역은 마츄피츄로 유명한 꾸스꼬를 포함하여 산악지역의 우아누꼬와 해안지역인 치끌라요와 피우라입니다. 리마에서 꾸스꼬까지는 20시간를 여행해야 하며 우아누꼬 10시간 치끌라요 13시간 18시간을 가야만 합니다.
이제는 저가 혼자 여행 다니면서 강의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리마의 교수들을 지방에 보내야 하겠는데 강의비와 출장비를 주어야하니 쉽지가 않습니다.

지방에 갈을 때 강의가 없는 시기에 치유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도 리마와 아마존 정글 이끼또스 그리고 안덱스 산맥의 해발 3200m의 까하마르까, 해안지역의 피스꼬지역에서 침술 사역과 뜸과 스포츠 마사지로 치유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타민과 미네랄제, 회충약과 관절염에 사용하는 영양제를 나누어 줍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으나 침과 뜸 그리고 약들의 부족으로 더 이상 치유사역을 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모든 강의는 현지인 교회를 빌려서 하고 있으며 저희 사무실도 현지인 교회에서 자리를 허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선교부 건물을 가져서 위의 모든 사역들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리마외곽에 신학대학을 지으려는 곳에 벽공사 일부를 하였습니다. 이곳에 신학대학이 완성되는 기도를 하면서 꾸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IEA 후원으로 성탄절에 리마시 외곽에 빈민촌인 Jicamarca 에서 어린이들에게 핫초코렛과 선물을 나누어주며 성탄절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이 IEA 회원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루어짐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헬리스 아뇨 누에보!!!
페루에서의 새해 인사입니다.

페루에서 지영민, 마르레네 선교사
2015년 1월 15일